



(주)하림

HMS 벤치마킹 '눈길'



지난 5월 15일 하림웨이기획단에서 실시했던 TP 경영보고회에 낯선 얼굴들이 눈에 띄어 관심을 끌었다. 하림경영관리시스템(HMS : Harim Management System)운영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신광교회 장덕순 담임목사와 부목사 10명, 선진에서 6명의 하림 가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비전달성을 위한 핵심가치전개(KVD : Key Value Driver)와 BSC 4대 관점에 의한 목표관리항목의 전개,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대책)선정과 과제해결을 위한 5단계 프로세스에 대한 이강수 부회장의 설명에 특히 관심을 표명했다.

이들은 본인들이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해야 할 것인지 연구하는 자세로 진지하게 발표내용에 귀를 기울였다.

김흥국 회장은 강평에서 그동안 운영해 왔던 TP-mgt기법을 HMS체계로의 전환을 지시하고 모든 업무가 HMS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생활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실행은 시스템이다.”라고 말하며 동아리와 같은 소단위 Cell 조직의 실행력이 강해야 우리가 추구하는 글로벌 생산성 1위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깔짚 이제는 하우스 키퍼(house keeper)로 해결



그동안 수많은 농가들은 출하 후 '계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새 깔짚을 넣을 것인가?' 아니면 '계분발효 처리 후 깔짚 보충을 할 것인가?' 를 두고 고민을 많이 했으리라고 본다.

미국 Lewis Brothers Manufacturing, Inc 에서 판매되고 있는 하우스 키퍼로 이처럼 어려운 고민을 말끔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올해 초 정문성 1본부장 일행이 미국 선진지 견학을 통해 보고 배운 정보를 (주)하림 농가들에게 홍보하는 시간을 갖고 농장에서 직접 하우스 키퍼 시범을 하였다.

실제 하우스 키퍼를 사용한 농가의 평균 휴지일수는 기존 방식인 계분제거 후 새 깔짚을 깔거나, 발효처리제를 뿌리고 재 입식을 할 때와 비교해 보면 평균 20여일이 단축 되어 실제 하우스 키퍼를 사용

하면 출하 후 재 입식까지 기간이 최대 7일 이내로 단축 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깔짚 부족현상은 매년 더욱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하우스 키퍼는 사육농가의 최대 이슈이자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류인플루엔자 (AI) 극복을 위한 닭고기 Festival 실시

5월은 화창한 날씨만큼이나 야외나들이가 많고 특히 '가정의 달'이란 이름에 걸맞게 각종 기념일이 많아 가족단위로 어울리는 모임이나 행사가 부쩍 많은 시기다.

하지만 하림은 불시에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AI)의 영향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침체되어 있고, 회사는 이보다 더 큰 어려움도 굳건하게 이겨낸 저력을 보여주기 위해 전 임직원이 닭고기 먹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하림 본사 전시판매장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닭고기를 판매하여 주위의 가족, 친지, 친구들과 닭고기를 나눠먹으며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고,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하여 정확한 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6월부터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마다 더욱 다양한 품목들을 할인판매를 하여 닭고기 먹기 캠페인을 활성화 할 계획에 있다.

(주)마니커

한나라당 민생대책특별위원회 방문

한나라당 민생대책특별위원회 서민경제 2분과



소속의 초선의원 일행이 시 피해실태 점검을 위해 지난 5월 26일 (주)마니커(대표이사 한형석) 용인 공장을 찾았다.

총 12명으로 구성된 서민경제 2분과 소속의원단은 한형석 회장으로 부터 업계 피해상황과 정부, 언론에 대한 건의사항을 브리핑 받은 후 생산현장에서 직접 도계작업에 참여, 근로자들과 함께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들은 용인공장 방문 후 (주)마니커 대리점과 치킨체인점 등을 둘러보고 업계와 유통, 자영업자를 보호할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민생대책특별위원회 의원들은 이번 방문을 통해 향후 법률개정과 정부 지원방안 마련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2008 서울국제식품전 참가

(주)마니커가 지난 5월 14일~1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08 서울국제식품전에 참가했다.

이번 행사에서 마니커는 유통업체, 영양사 등과 적극적인 상담활동을 펼치는 한편 일반 참관객을 대상으로 육가공 제품 시식과 닭고기 소비촉진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시 안심 캠페인에 주력했다. 참관객들도 홍보활동에 큰 관심을 갖고 참여해서 이번 홍보는 시의 실체를 바로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주)마니커는 지난 5월 2일부터 8일까지 용인 우리랜드에서 열린 '2008 용인 봄꽃축제'와 5월 10일에서 12일까지 경북 문경에서 열린 '문경 전통차사발축제'에도 참가하여 '시 바로 알기'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용인 수지나눔장터 “닭고기 안심하고 드세요.” 캠페인 실시



전국이 시와 광우병으로 한참 시끄러운 5월 3일 토요일, 용인 수지공원에서 (주)마니커와 한선교 국회의원, 수지구청에서 주최하여 “닭고기 안심하고 드세요.” 캠페인을 진행했다.

수지공원에서 매주 토요일 열리는 수지나눔장터에서 (주)마니커에서는 스마일 너겟과 춘천닭갈비 등의 제품을 현장에서 조리하여, 용인시민들에게 4시간 동안 무료 시식을 진행하였다. 이날은 어린이날과 근로자의 날의 징검다리 연휴의 중간 날로 3천여명의 가족단위 방문객들이 성황을 이루었으며, 4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시의 오해와 닭고기가 안전한 먹거리인 것을 강조하였다.

닭고기 시식과 안전성 홍보에는 (주)마니커 한형석 회장과 한선교 국회의원, 오세동 수지구청장 등이 참여해 더욱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

스모크/바비큐치킨 선물세트 판촉캠페인 시행

마니커 스모크/바비큐치킨 사대판매 캠페인 실시

- 행사기간 : 2008. 5. 15 ~ 2008. 6. 30
- 제품구성
1호 : 통스모크치킨 2개 + 바비큐치킨 2개 = 22,000원
2호 : 통스모크치킨 3개 + 바비큐치킨 2개 = 27,000원



(통스모크치킨 (650g))



(바비큐치킨 (440g))



참나무로 훈연하여 맛과 향이 그대로 살아 있고, 전자레인지만으로 간편하게 조리 가능 합니다.



완전 조리제품으로 전자레인지에서 살짝 익힌 다음, 바비큐 양념소스를 발라 후라이팬에서 조리하면 맛이 일품입니다.

닭고기 소비촉진 차원의 마니커 육가공품 선물세트 판촉 캠페인이 시행 중이다.

시로 인해 닭고기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안심하고 먹어도 아무이상 없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임직원 스스로 회사제품의 판촉을 통해 '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만드는 한편 하나로 뭉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기획된 이번 캠페인은 6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스모크/바비큐 선물세트는 1호(22,000원)와 2호(27,000원), 두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 구입 문의처 : (031)746-1501, 구내 260~262번

(주)체리부로

(주)체리부로 GS리테일과 JBP (Joint Business Plan) 조인식

(주)체리부로(대표이사 김인식)는 GS리테일과 5월 15일 JBP(Joint Business Plan) 조인식을 가졌다. 충북 진천 (주)체리부로의 대회의실에서 거행된 GS리테일과의 JBP 조인식은, 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양사가 긴밀한 정보공유, 전략수립 및 마케팅활동을 통해 고객만족 달성을 목표로 공동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며 합의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써 양사에 의해 합의서 서명이 이루어졌다.

체리부로 마케팅실 이수현 주임에 따르면 "체리부로는 신선하고 우수한 제품을 적기적소에 공급하여 주고 GS리테일은 소비자 정보를 바탕으로 체리부로와 긴밀하게 제품 및 패키지 개발, 프로모션 활동, 전략수립 등 공동의 마케팅 전략을 전개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가장 신선한 제품을 매장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양사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며, 체리부로의 뛰어난 생산 시스템과 품질 우수성을 GS리테일이 인정하여, 매장에서 신선하고 우수한 체리부로 제품을 소비자에게 폭 넓게 제공하고자 하는 배경에서 조인식이 이루어졌다."고 하며 "이후 양사에서는 제품, 패키지, 디자인 및 판촉활동에 걸쳐 소비자 분들께 보다 큰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긴밀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성화식품(주)

창사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성화식품(주)(대표이사 이승준)은 지난 5월 2일 회사 창사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창사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외부에서 행사를 하려고 준비했으나, 때늦은 시발생과 확산으로 양계와 오리 사육농가들의 시름이 커지고 육계사업 경영환경



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농가와 아픔을 함께한다는 의미로 사내에서 행사를 가졌다.

성화식품(주)는 1998년 5월 IMF로 국내 경제가 어려울 때, '육계사육 농가에게는 안정적 소득증대를, 소비자에게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목표아래 육계계열화 사업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 전 임직원의 노력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이 날 행사는 지난 10년의 발자취와 장기 근속자에 대한 선물지급, 회사 창립과 발전에 기여한 대표이사과 경영고문에 대해 전 임직원의 마음을 담은 공로패 증정, 대표이사 기념사, 축하케이크 커팅, 기념식수 순으로 진행됐다.

이승준 대표이사는 기념사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감회와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그간의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써준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회사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직원들은 회사에서 준비한 기념품을 선물로 받았으며, 다과회를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굿모닝 쇼” 실시



성화식품(주)는 임직원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굿모닝 쇼”(아침체조)를 실시하고 있다.

외부강사를 초빙해 진행되는 “굿모닝 쇼”는 생산 현장사원을 포함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매일 아침 업무 시작 전에 스트레칭, 아침체조, 구호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임직원들은 “활기찬 아침을 맞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된다.”며, 즐거워하는 분위기로 호응도가 매우 좋다.

성화식품(주)은 3년 전부터 각 반별로 휴게실에 안마의자, 발 마사지기 제공과 함께 사내에 헬스장을 설치·운영하여 임직원들이 수시로 체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